높임 표현

주체 높임법

서술상의 주제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특징 | 예시 |
|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‘-시’를 붙이고,  주격 조사 ‘이/가’ 대신 ‘께서’를 사용하기도 한다.  주체높임법은 주어가 생략된 문장에서도 사용된다. | 할아버지께서 밥을 드셨다.  선생님께서 그 책을 읽으셨다. |
| 특수 어휘로 주체 높임을 표시하기도 한다. | 아버지께서 잠을 주무신다.  어머니께서 집에 계신다. |
| 용언이 여러 개 함께 나타날 경우, 장의 마지막 용언에 ‘-시’를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. | 일을 마치시고 가셨다.(o)  읽으시고 계신다.(x,부자연) |
| 간접 주체 높임 :  높여야 할 대상의 ‘신체, 소유물, 생각’ 등에 ‘시’를 결합하여 간접적으로 높인다. | 선생님의 키가 크시다 (o)  커피 나오셨습니다 (x, 비소유 높임) |
| 부모의 윗사람 앞에서 부모를 호칭할 때, 부모를 높이지 않는 것이다.  하지만 공적인 자리(직장)에서 압존법을 쓰면 부자연스러워진다. | 할머니, 아버지가 지금 퇴근했습니다.  (평사원이 사장에게) 사장님, 부장이 퇴근했습니다.(x) |

객체 높임법

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, 즉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특징 | 예시 |
| 부사격 조사 ‘에게’ 대신 께‘를 사용한다 |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책을 드린다. / 주다  선생님꼐 여쭙고싶은 질문이 있습니다. / 묻다 |
| 특수 어휘로 주체 높임을 표시하기도 한다. | 드리다, 모시다, 여쭈다(여쭈어 보겠습니다)/여쭙다(여쭈워 보겟습니다) |

상대 높임법

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, 다양한 종결 어미를 사용한다.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 | 평서법 | 의문법 | 명령법 | 청유법 | 감탄법 |
| 격식체 | 하십시오체 | 가십시다 | 가십니까? | 가십시오. | 가시지오 | - |
| 하오체 | 가(시)오 | 가(시)오? | 가시오. | 갑시오 | 가는 구려 |
| 하게체 | 가네, 감세 | 가는가? | 가게. | 가세 | 가는구먼 |
| 해라체 | 간다 | 가니? | 가라 | 가자 | 가는구나 |
| 비격식체 | 해요체 | 가요 | 가요? | 가요. | 가요 | 가요 |
| 해체 | 가 | 가? | 가. | 가, 가지 | 가 |

잘못된 예시들

|  |  |
| --- | --- |
| F : 할아버지께서는 요즘 고민이 계신 것 같다.  T : 할아버지께서는 요즘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. | 계시다 – 사람의 유무에 쓰임  있으시다 – 사람의 소유의 유무 |
| F : 그가 아버지께 용돈을 줬다.  T : 그가 아버지께 용돈을 드렸다. | 객체높임법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. |
| F : 구입한 금액이 총 5만 원이십니다.  T : 구입하신 금액이 총 5만 원입니다. | 5만 원이십니다. -> 금액을 높임  구입하신에 붙여 손님을 높여야함 |
| F : 연락 없이 들렀건만 할머니께서는 반갑게 맞아 줬다.  T : 연락 없이 들렀건만 할머니께서는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. | 객체높임법을 지키지 않았다. |
| F : 할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하고 오렴  T : 할아버지꼐 문안 인사를 드리고 오렴 | 객체높임법을 지키지 않았다. |
| F :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습니다.  T :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. | 주체높임법을 지키지 않았다. |
| F : 은미야, 선생님께서 빨리 교무실로 오시래  T : 은미야, 선생님께서 빨리 교무실로 와래 | ‘오시래’는 주체를 높인다. 은미는 높일 대상이 아니다. |

헷갈리는 단어들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단어 | 예시 | 설명 |
| 다리다  달이다 | 와이셔츠를 다리다  한약을 달이다 |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해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 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/약제 따위에 물을 부어 우러나도록 끓이다 |
| 앉히다  안치다 | 자리에 앉히다  밥을 안치다 | 사람이나 동물이 다른 물건이나 바닥에 엉덩이를 올려놓다  밥, 떡, 찌개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리다 |
| 졸이다  조리다 | 한약을 졸이다 / 마음을 졸이다  계란을 간장에 조리다 | 액체를 날리다 / 조바심이나 초조함을 느끼는 상태에 있게 하다  떤 재료에 양념을 넣고 끓여서 맛이 배어들도록 하는 것 |
| 맞히다  맞추다 | 퀴즈의 답을 맞히다  시험 정답을 친구와 맞추다 | 화살이나 탄환 등을 표적에 적중시키다 / 정답을 골라내다  대상끼리 서로 비교해 살피다 |
| 절이다  저리다 |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다  다리가 저리다 | 푸성귀나 생선 따위에 소금기나 식초, 설탕 등이 배어들다 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려 피가 잘 통하지 못해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 |
| -느라고  -노라고 | 책을 읽느라고 밤을 새웠다  하노라고 했는데 힘드네요 |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|
| 시켰다  식혔다 | 일을 시켰다  더위를 식혔다 |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다  열을 낮추다 |
| 갈음  가름  가늠 | ~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 실수가 승패를 가름했다  A팀이 이길 것이라고 가늠했다 |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 사물이나 상황을 구별하거나 분별하다  어떤 것을 짐작해서 헤아려 보다 |
| 든지  던지 | 하든지 말든지  얼마나 춥던지 손이 얼었다 |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,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|
| 줄이다  주리다 | 크기를 줄이다  배를 주리다 | 줄다의 사동사  제대로 먹지 못하여 배를 곯다. /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몹시 아쉬워하다 |
| 한창  한참 | 한창 차가 붐빌 시간  한참 걸어서 도착했다 | 무엇이 가장 활기차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현재진행형의 시간  시간의 흐름이나 경과를 이르는 양적 시간의 개념 |
| 들리다  들르다 | 소리가 들리다  친구집에 들르다 | 듣다(사람이나 동물이 소리를 감각 기관을 통해 알아차리다)의 피동사 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 |
| 느리다  늘이다 | VPN 속도가 느리다  치즈를 늘이다 | 어떤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|
| 반드시  반듯이 | 반드시 성공할꺼야  반듯이 눕다 | 틀림없이 꼭  작은 물체,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 |
| 걷히다  거치다 | 구름이 걷히다  구지 청아람을 거쳐 도착했다 | 걷다(구름이나 안개 따위가 흩어져 없어지다)의 피동사 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 / 무엇에 걸리거나 막히다 |
| 배다  베다 | 냄새가 배다  사과를 칼로 베다 | 스며들거나 스며 나오다. / 배 속에 아이나 새끼를 가지다  날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르다 / 누울 때, 베개 따위를 머리 아래에 받치다 |
| 벌리다  벌이다 | 입을 벌리다  일을 벌이다 |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|
| 받치다  밭치다 | 쟁반에 커피를 받치다  면발을 채에 밭치다 |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  구멍이 뚫린 물건 위에 국수나 야채 따위를 올려 물기를 빼다 |
| 으로써  으로서 | 생선을 식칼로써 토막을 내다  교장으로서 해야할 도리 |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조사 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|
| 지그시  지긋이 | 눈을 지그시 감다  나이가 지긋이 들었다 |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 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게 |
| 띄다  띠다 | 눈에 띄다  허리에 띠를 띠다 / 미소를 띠다 | 뜨이다(‘뜨다’의 피동사)의 준말  띠나 끈 따위를 두르다 /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 |
| 부수다  부시다 | 컴퓨터를 부수다  눈이 부시다 | 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다  빛이나 색채가 강렬하여 마주 보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|
| 지향  지양 | 객체 지향 언어 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다 |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.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. ‘피함’, ‘하지 않음’으로 순화 |
| 황당  당황 |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 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왔다 | (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다)’의 어근 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|
| 변환  변천 | ADC,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  50년간 변천해온 우리 생활 | 달라져서 바뀜. 또는 다르게 하여 바꿈 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변함 |
| 식별  분별 | 바코드리더기는 물품 식별 장치이다  민석이는 사리분별은 할 수 있다 | 분별하여 알아봄 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 |
| 여느  어느 | 여느 때 보다 일찍 일어났다  어느 때고 보고 싶으면 오너라. | 평서문 – 시간상 표현 - 그 밖의 예사로운 또는 다른 보통의  의문문 – 불특정한 것 -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 |

띄어쓰기 규정

|  |  |
| --- | --- |
| 규정 | 예시 |
| 1. 조사는 그 앞 말에 붙여 쓴다 | 꽃이, 꽃마저, 꽃밖에 .... |
| 1.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| 아는 것이 힘이다. 먹을 만큼 먹어라. 아는 이를 만났다. |
| 1.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| 한 개, 차 한 대, 한 자루, 집 한 채 |
| 1. 수를 적을 적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. 단, 숫자는 붙여 쓴다 |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구, 12억 3456만 7899개 |
| 1.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| 국장 겸 과장, 이사 및 이사장, (사과, 배 등등) |
| 1. 단음 별로 된 단어가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. 단, 이 허용 규정은 자연스럽게 의미 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된다 | 좀더, 좀 더, 그때 그곳, 그 때 그 곳, 더 큰(O), 더큰(X) |
| 1.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, 붙여 씀도 허용한다 | 불이 꺼져 간다(꺼져간다), 비가 올 성싶다(올성싶다) |
| 1. 성과 이름 등은 붙여 쓰고, 이에 덧붙는 호칭어, 관직명 등은 띄어쓴다 | 홍길동, 백법 김구, 충무공 이순신 장군 |
| 단, 성과 이름 등을 분명히 구분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외국인은 외국사람 이름에 준해서 띄어 써야 한다 | 남궁억/남궁 억, 독고준/독고 준  기처드 기어, 앨런 워커 |
| 9.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 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, 단위 별로 띄어 쓸 수 있다 |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/ 대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 대구소프트웨어고 임베디드과 |
| 10. 전문 용어는 단어 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, 붙여 쓸 수 있다 |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/ 중거리핵탄두미사일 |

조사는 체언(명사, 대명사, 수사)뒤에 의존 명사는 용언(동사, 형용사)뒤에 붙인다.